해방전후 남촌 주민구성의 변화

은 기 수*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20세기 백년은 격동의 시기였다고 말한다. 20세기 백년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 근대화 과정만을 두고도 압축성장 혹은 돌진적 근대화라는 개념으로 격동의 시기를 회상한다. 그러나 1960년 이전의 상황이 더 극적일지도 모른다. 20세기 초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한제국기를 경험했고, 바로 이어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다. 일제강점기동안 우리 민족은 여러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한민족이 거주해 온 이 땅에 일본인들이 대거 몰려와 우리와 함께 오랜 기간을 살았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들만이 살던 땅에 일본어를 쓰는 일본인들이 들어와 이질적인 두 민족이 오랜 기간동안 함께 거주한 역사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 중 극적인 경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으로 돌아갔다. 일제의 식민지배 속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우리의 많은 동포들은 만주나 일본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한반도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시작되었다. 해방과 함께 한반도 내에서도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남과 북에 이념을 달리하는 두 정부가 구성되고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북에서 남으로 혹은 남에서 북으로의 인구이동도 일어났다. 1950년 한국전쟁은 또 한번 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사회학

구가 대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20세기 역사에서 1960년대 이전의 역사를 거주와 이동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거주했던 시기가 있었고, 해방 이후 일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가고 한반도와 주위 국가들 사이에 일어난 한국인들의 귀환이동의 시기, 그리고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과 남과 북 사이의 이동의 시기가 존재한다.

1960년대 이전의 거주와 이동의 역사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공간의 하나는 바로 오늘날 서울의 중구지역이다. 중구라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부르기 이전에 우리가 남촌으로 불러온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에 거주한 일본인들의 50% 정도가 거주했을 정도로 일본인의 중심 거주지역이면서 주 활동무대였었다. 특히 오늘날 충무로에 해당하는 본정(本町)은 일제강점기 남촌의 중심지였었고 본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일본인들이 몰려 살았다.

1945년 해방이후 남촌은 행정구역상 중구가 되었고 오늘날 수도 서울의 최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해방 이후 누가 중구의 주민이 되었을까? 일본인들이 남촌에서 물러간 후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의 새로운 주민이 되었을까? 이 곳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계속 거주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떠나간 후 공백상태가 된 이 곳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을 것 또한 분명하다. 혹은 해외에서 혹은 북한에서 혹은 남한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중구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의 인구가 피난 등의 이유로 대폭 줄었을 때 중구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구를 떠났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한 번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시작되었을 때 과거에 중구에 살다가 떠났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중구에 들어와 살게 되었을 것이다.

서울의 최중심부인 오늘날 중구지역의 주민들은 20세기 백년동안

수많은 계기를 따라 수없이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한국전쟁 직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중구 지역에 살았을까?

이 연구는 해방을 전후하여 일제강점기의 남촌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지역이 일본인들이 밀집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나누어 주민구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1960년대초까지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연구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잘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연구가 가능한 시기와 지역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해방이후의 시기에는 일제시대의 수정(壽町), 오늘날 주자동(鑄字洞)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 자료가 존재하는 1955년부터의 자료를 통해 해방이후 남촌 주민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료와 연구방법론

일제강점기 남촌 주민의 구성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세조사결과를 이용한다. 1925년부터 매 5년 간격으로 이루어진 국세조사는 오늘날 인구센서스와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졌고 자료의 완전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국세조사에서 나타난 남촌의 동별 인구기록을 통해 남촌의 주민이 주요 민족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말 그대로 격동기였다. 더구나 해방 후 5년만에 한국전쟁을 겪어야만 했던 격동기에 서울 남촌의 주민구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자료가 남아있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공식적인 인구기록은 1955년부터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 중구 주자동의 1955년부터 1962년까지의 인구기록을 통해 해방 이후 중구 주민구성의 변화의 단초를 밝혀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책이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주민구성의 변화를 국세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해방 이후에도 양적인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료나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질적인 연구방법보다는 양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시간과 자료의 제약상 중구 주자동이라는 아주 조그만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삼아 분석하지만 나중에는 중구의 전 지역에 걸쳐 주민구성의 변화에 관한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례연구지역인 주자동의 주민구성의 변화도 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남촌, 오늘날 서울 중구의 주민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누가 중구에 살았는지가 일차적인 관심이다. 따라서 남촌의 주민이 해방을 전후하여 왜 그렇게 변화해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연구의 성격상 이 글은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글이 아니라 현상을 기술하는 서술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일제강점기 남촌의 주민구성

일제강점기 남촌의 주민구성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일제강점기 동안 서울의 인구구성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다음 <표 1>을 통해 살펴보자.

<표 1> 경성부 서울의 인구 추세, 1910-44

(단위: 명/%)

	총 인 구		조 선 인			일 본 인		
연도	인구수	성장율	인구수	비율	성장율	인구수	비율	성장율
1910	248,985	-	198,011	80.50	-	46,067	18.73	-
1915	241,805	-0.34	176,026	73.01	-2.35	62,914	26.10	7.81
1920	250,208	0.74	181,829	72.67	0.65	65,617	26.22	0.84
1925	306,363	4.05	220,312	71.91	3.84	81,559	26.62	4.35
1925	342,626	(6.29)	247,404	72.21	(6.16)	88,875	25.94	(6.07)
1930	394,240	2.81	279,865	70.99	2.47	105,639	26.80	3.49
1935	444,098	2.38	312,587	70.39	2.21	124,155	27.96	3.23
1935*	680,245	(14.90)	539,535	79.31	(18.16)	132,232	19.43	(4.40)
1940	935,464	6.38	775,162	82.86	7.25	154,687	16.54	3.14
1944	988,537	1.54	824,976	83.45	1.74	158,710	16.06	0.72

주) 1. 1910년의 인구는 1915년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속하는 경성부안의 경성, 용산 및 마포의 수치를 합한 것임.
2. 1915-1925년의 것은 연말상주인구조사 자료임.
3. 1925-1944년의 것은 국세조사 자료임.
4. 1925년 뒤의 줄 성장율은 1920년 상주인구와 1925년 국세조사인구를 가지고 계산한 것임. 상주인구조사 자료는 국세조사 자료에 비해 10% 이상 과소보고된 것으로 판단됨.
5. 1935*는 1940년 기준으로 1935년 경계를 조정하여 추계한 인구를 사용하였음.

자료: 1910-25: 조선총독부연보; 1925-44: 국세조사 보고서.
권태환 · 전광희 · 은기수(1997: 109, 표 5-2)

1910년 서울의 인구는 약 25만명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조선인이 서울 전체 인구의 약 81%를 점하고 있었고, 일본인이 약 19%를 차지하고 있었다. 처음 국세조사가 실시된 1925년에는 서울

의 인구가 3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5년 사이에 일본인이 서울 전체의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감소한 반면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6%로 증가하였다. 1930년 국세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인구는 거의 4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인이 서울 전체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증가한다. 다시 5년 후인 1935년에는 서울의 인구가 약 45만명이 되고 그 가운데 일본인은 12만4천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조선인의 비율은 70%로 감소한다. 이처럼 1935년까지는 서울의 전체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일본인의 인구증가율이 조선인의 인구증가율보다 높아 일본인이 서울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1936년에 대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일어나면서 서울의 외곽지역이 대거 서울로 편입되고 서울의 전체 인구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일본인의 인구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1944년에는 서울의 전체 인구가 거의 일백만명으로 증가하지만 일본인은 15만8천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약 16%에 불과한 반면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83%로 높아진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남촌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해갔을까? 다음 <표 2>를 보자.

<표 2> 일제강점기 서울 남촌의 동별, 민족별 인구구성

	1925			1930			1935		
동명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남미창정	1537	1096	23	1635	1189	39	1802	1193	110
앵정정1정목	1434	232	17	1443	255	44	1705	306	37
앵정정2정목	1616	402	2	2003	385	2	2418	379	3
입정정	188	1863	4	264	1860	3	353	2096	6
임 정	405	1885	35	574	1804	10	721	2012	27
약초정	1401	246	19	1321	304	9	1458	365	27
수표정	206	904	31	250	820	30	275	887	109
황금정1정목	538	1163	80	468	1083	26	491	886	77
황금정2정목	1288	1033	37	1305	1048	40	1519	1265	58
황금정3정목	1895	1251	71	1802	1135	51	1980	1348	90
황금정4정목	1125	1439	88	1243	1429	43	1294	1433	51
황금정5정목	977	1177	17	649	976	4	1111	1248	19
황금정6정목	157	601	31	434	393	0	667	587	3
황금정7정목	114	1368	5	234	1078	6	338	1053	16
남대문통1정목	108	108	78	57	191	44	60	269	53
남대문통2정목	248	104	11	198	120	11	200	106	0
남대문통3정목	348	108	19	282	112	31	302	106	35
남대문통4정목	91	171	10	59	315	1	67	128	0
북미창정	610	785	119	848	527	198	1011	675	126
본정1정목	898	210	8	719	249	34	702	335	21
본정2정목	1763	413	21	1760	532	27	1901	601	42
본정3정목	1384	216	51	1298	280	43	1296	455	79
본정4정목	1935	254	58	2001	322	26	2255	478	68
본정5정목	1059	139	14	1297	226	0	1420	272	10
남산정1정목	420	50	12	427	44	7	477	79	11
남산정2정목	663	79	0	688	74	1	957	128	0
남산정3정목	428	56	0	502	57	1	515	68	1
대화정1정목	932	87	19	979	75	2	985	113	1
대화정2정목	1787	145	7	2105	192	9	2131	205	22
대화정3정목	863	139	4	1114	116	1	1266	119	0
명치정1정목	730	255	19	683	212	4	563	238	8
명치정2정목	1438	494	88	1513	356	33	1715	884	106
영락정1정목	704	199	14	762	177	1	799	198	0
영락정2정목	959	242	17	924	211	7	1067	397	2
장곡천정	544	151	664	492	173	428	629	184	620

<표 2> 일제강점기 서울 남촌의 동별, 민족별 인구구성(계속)

	1925			1930			1935		
동명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다옥정	17	2277	28	19	2186	25	21	2789	16
삼각정	43	942	0	30	906	5	23	1152	6
광희정1정목	336	1919	1	637	1960	0	925	1930	2
광희정2정목	85	3028	4	267	2859	0	410	3025	0
동사헌정	198	447	2	588	337	4	789	261	6
서사헌정	558	1367	35	998	1076	12	1315	1109	25
병목정	1641	1826	33	1938	1832	24	2125	1533	27
신 정	1343	198	18	1258	273	19	1311	233	20
초음정	1576	1114	1	1764	985	0	2224	1001	9
방산정	169	1140	2	340	1262	0	520	813	0
日ノ出町	169	3	0	191	4	0	192	10	0
수 정	743	47	3	736	73	1	744	70	0
수하정	174	587	16	160	470	0	125	632	0
장교정	205	705	13	190	744	0	220	841	24
욱정1정목	2472	406	65	2449	365	24	2383	457	29
욱정2정목	1034	120	0	968	117	2	1683	198	5
욱정3정목	304	24	6	280	40	0	342	37	8
주교정	626	1649	15	784	1696	4	1030	1572	9
화원정	1006	338	14	1089	336	9	1145	352	11
왜성대정	151	8	0	191	7	0	188	16	0
민족별 인구 총수	43643	37210	1949	47210	35848	1345	54165	39127	2035
남촌 인구 총수		82,802			84,303			94,941	
남촌인구/서울인구		24.2%			21.4%			21.4%	
남촌일인/전체일인		49.4%			44.7%			43.6%	
남촌일인/남촌인구		52.7%			56.0%			57.1%	
차이지수		53.9			49.4			44.5	

자료 : 각년도 국세조사보고서

1925년 국세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촌의 인구는 1925년에 8만3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촌의 인구가 서울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4.2%이다. 1930년에는 남촌의 인구가 8만4천명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서울 전체 인구의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남촌의 인구가 서

울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1.4%로 감소한다. 다시 5년 후인 1935년에 남촌의 인구는 1930년보다 일만명 이상 증가하지만 남촌의 인구가 서울 전체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930년과 마찬가지로 21.4%에 머물러 있다.

남촌에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위의 <표 2>에서 쉽게 확인이 된다. 1925년에 남촌에 거주했던 일본인은 43,643명으로 남촌 인구의 52.7%를 차지하고 있다. 남촌 인구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한다. 1930년에 일본인의 수는 절대수에 있어서도 47,210명으로 증가했고, 일본인이 남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6%로 증가한다. 다시 5년 후인 1935년에 일본인의 절대수는 5년 전에 비해 증가해 5만4천명이 넘고 남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7.1%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남촌의 일본인의 인구가 서울 전체의 일본인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25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전체의 인구가 88,375명인데 남촌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인구는 43,643명으로 전체 일본인 인구의 49.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이 되면 남촌의 일본인 인구는 약간 감소한 반면 서울 전체의 일본인 인구는 5년 전보다 더 많이 증가하여 남촌의 일본인이 서울 전체 일본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44.7%로 감소한다. 다시 5년 후인 1935년에는 남촌의 일본인이 5만4천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 서울 전체의 일본인 인구는 12만4천명을 넘어서 남촌의 일본인이 서울 전체 일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 전체 인구의 변화와 일본인 인구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서울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일본인의 인구의 증가는 1935년까지는 조선인의 인구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다 1936년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져 서울 외곽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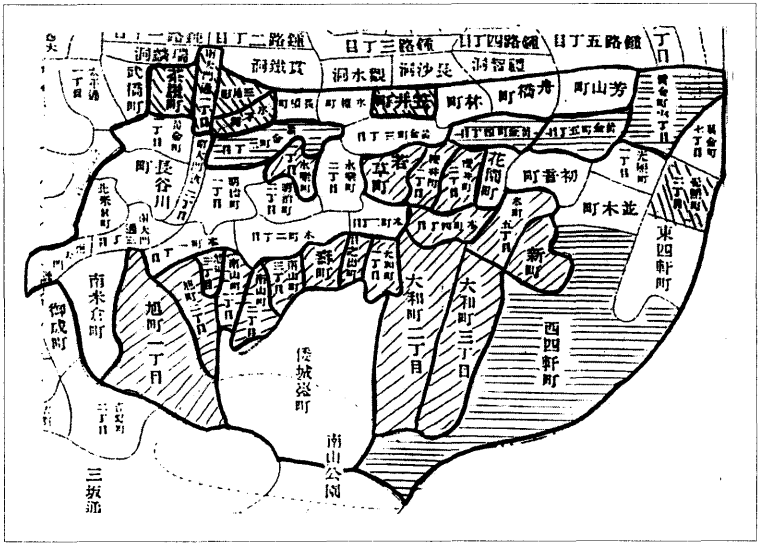
일본인 인구는 절대적으로는 약간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선인의 인구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서울 전체 인구 가운데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5년 이후 계속 감소하게 되었다.

남촌은 1935년에도 전체 인구 가운데 57% 이상이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일본인의 거주지역이었다. 남촌을 동별로 나누어보면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한 지역과 조선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한 지역, 두 민족이 혼재한 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표 3>에 나타난 동별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인구를 통해 1935년 현재 일본인 집중거주지역과 조선인 집중거주지역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1)]

- 조선인 집중거주지역: 다옥정, 남대문1정목, 삼각정, 수하정, 입정정, 광희정2정목
- 일본인 집중거주지역: 욱정1, 2, 3정목, 남산정1, 2, 3정목, 수정, 일출정, 대화정1, 2, 3정목, 신정, 본정4, 5정, 영락정1정목, 약초정, 앵정정1, 2정목
- 구별이 힘든 지역: 황금정2, 4, 5, 6정목, 서사헌정

이를 <그림 1>을 통해 확인해보면 일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마치 벨트처럼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인들이 남촌 전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었지만, 남촌 내에서도 일본인들은 오늘날 충무로의 남쪽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진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에 조선인들은 오늘날 을지로에 해당하는 황금정과 그 북쪽의 북촌에 붙어 있는 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대표적인 토막민들의 거주지였던 광희

1) 일본인 집중거주지역은 한 洞에서 일본인의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으로 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선인 집중거주지역은 한 洞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주하여 어느 민족의 거주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역은 일본인 對 조선인의 比가 0.8~1.2인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그림 1> 거주지역의 분화

주: 일본인 집중 거주지역 조선인 집중 거주지역

조선인·일본인 집중 거주지역

정도 역시 조선인의 주 거주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의 지역도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과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을 기준을 달리해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또 하나의 관심은 남촌 거주 주민의 계층별 성격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전체에 걸쳐 계층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계급·계층구분의 분석틀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1930년 국세조사결과이다. 1930년 국세조사에서는 직업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고 이를 보고서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930년 서울 지역의 민족별, 성별 계급·계층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은기수, 2000 참조). 그러나 1930년의 국세조사결과도 서울의 동별로 민족에 따라 상세한 직업구조를 밝혀놓지는 않았

다. 따라서 1930년 국세조사결과를 이용해도 남촌 주민의 계층적 성격을 밝힐 수가 없다. 대신 이 글에서는 거주지 분리지수를 이용하여 민족별 거주지가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2)]

위의 <표 2>에는 비유사성지수(index of dissimilarity, 차이지수)가 제시되어 있다.[3)] 1925년 현재 거주지의 분리를 나타내는 비유사성지수는 53.9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지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유사성지수는 1930년에 49.4, 1935년에 44.5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 지수만으로 보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거주지 분리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주의 차별정도를 보여주는 비유사성지수를 통해 민족에 따른 거주지 차별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유사성지수를 통해서 민족별 거주지 차별 실태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조선인도 많이 거주하지만 그 곳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독립적인 가족이나 가구를 이루지 못하고 낮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비록 비유사성지수는 낮아지고 거주지 차별의 정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민족에 따른 거주형태의 차이를 은폐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할 수 있지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남촌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런 한계가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다음 <표 3>의 남촌의 일본인과 한국인의 성별 인구구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보자.

---

2) 거주지 차별은 계층에 따른 차이의 한 지표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인종에 따른 거주지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현대 서울에서도 계층에 따른 거주지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은 높은 계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반면, 중구를 비롯한 서울의 변두리 지역은 계층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은기수, 2001).

3) 비유사성지수가 0일 때는 민족에 따른 거주지의 차이가 전혀 없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동에 일본 전체 인구 가운데 30%가 그 동에 살고, 조선인도 30%가 그 지역에 사는 식으로 모든 동에 걸쳐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 비율이 동일하다면 비유사성지수는 0이 된다. 반면에 극단적인 경우 일본인이 사는 곳에는 조선인이 전혀 살지 않고, 조선인이 사는 곳에는 일본인이 전혀 살지 않는 경우 비유사성지수는 100이 되고,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거주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표 3> 1935년 서울 남촌의 동별, 민족별 성비

동 명	일본인	조선인	동 명	일본인	조선인
삼각정	109.1	92.3	화원정	106.3	146.2
다옥정	90.9	80.1	초음정	106.1	6115.3
북미창정	118.8	138.5	방산정	108.0	96.4
장곡천정	177.1	275.5	병목정	102.4	76.2
남대문통1정목	150.0	244.9	동사헌정	100.3	85.1
남대문통2정목	185.7	430.0	서사헌정	87.1	68.8
남대문통3정목	177.1	381.8	신정	39.6	156.0
남대문통4정목	100.0	287.9	대화정1정목	100.6	117.3
황금정1정목	151.8	105.1	대화정2정목	99.7	97.1
황금정2정목	111.6	115.9	대화정3정목	91.8	56.6
황금정3정목	116.9	119.9	일출정	108.7	66.7
황금정4정목	108.0	113.9	왜성대정	86.1	100.0
황금정5정목	199.5	125.7	수정	112.0	150.0
황금정6정목	99.7	97.6	남산정1정목	76.0	243.5
황금정7정목	102.4	104.5	남산정2정목	109.0	146.2
광희정1정목	114.6	96.7	남산정3정목	109.3	161.5
광희정2정목	112.4	102.3	본정1정목	148.9	487.7
수하정	95.3	92.7	본정2정목	114.3	362.3
장교정	93.0	89.8	본정3정목	211.3	299.1
수표정	85.8	88.3	본정4정목	108.8	220.8
영락정1정목	103.8	122.5	본정5정목	100.8	191.4
영락정2정목	103.6	264.2	명치정1정목	99.6	226.0
약초정	103.2	168.4	명치정2정목	106.9	94.3
입정동	104.0	93.0	욱정1정목	90.6	165.7
임정	100.3	100.4	욱정2정목	76.6	76.8
주교정	120.6	109.0	욱정3정목	86.9	117.6
앵정정1정목	111.5	188.7	남창미정	106.7	129.4
앵정정2정목	108.1	126.9			

<표 3>에 나타난 성비는 정상적인 성비에서 벗어난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본정1정목의 조선인 성비 487.7은 조선인 여자 1명에 대해 조선인 남자는 거의 다섯명의 꼴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신정의 일본인 성비 39.6은 일본인 남자 한 명당 일본인 여자 2.5명의 비율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자연상태에서의 성비는 102~107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남촌의 동별 성비구조는 정상에서 벗어난 경우가 허다함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의 성비가 두드러지게 왜곡된 동은 우선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꼽을 수 있다. 남산정1정목(243.5), 본정4정목(220.8), 앵정정1정목(188.7) 등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조선인 남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또 조선인이 많이 거주한 남대문통1정목보다는 일본인이 더 많이 거주한 남대문통2정목(430.0), 남대문통3정목(381.8)등에서 성비의 왜곡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조선인만의 거주지역으로 나타난 곳에서는 성비의 왜곡이 덜 심하지만 여자에 비해 오히려 남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들의 성비는 동별로 살펴볼 때 몇 지역을 제외하면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남대문통, 황금정1정목, 수표정, 서사헌정, 신정, 남산정1정목, 욱정2정목 등을 제외하면 일본인의 성비는 정상이거나 정상에 가깝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성비의 왜곡은 몇 지역을 제외하곤 별로 심하지 않은 반면에 조선인들의 성비의 왜곡이 심한 현상을 통해 먼저 조선인들은 정상적인 가구나 가족의 형태로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비의 왜곡이 심한 지역이 남촌 가운데에서도 상업지역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하던 남자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면 성비가 낮은 지역, 즉 조선인 여자들이 조선인 남자들보다 훨씬 많이 거주한 지역은 주로 거주지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조선인 여자들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이 많기 때문이었을까?

이런 의문은 각 동의 성격과 그 지역에 거주했던 일본인과 조선인의 직업적 특성이 해명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연구에서는 이런 의문에 답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4. 해방이후 남촌 주민구성의 변화

해방 직후 남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연구내용인 주민구성의 측면에서도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이 땅을 떠나야 했을 때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특히 가옥의 경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대로 집을 비우고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일단 빈 집에 누가 들어와 살게 되었을까?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 혹은 "적산"은 누구의 소유로 변했을까? 북한에서 1946년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남으로 내려왔다는 통계는 있는데 그들은 남한의 어디에 정착했을까? 일본인들이 떠난 남촌, 오늘날 중구에는 얼마나 살았을까? 한국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구를 떠났을까? 그리고 전쟁 후에는 누가 중구로 돌아왔을까?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체계적으로 해답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 개개 주민과 가옥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료적 제약이 지금까지 이러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연구를 가로막았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의문을 모두 풀어줄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1955년부터 1962년 사이에 중구의 주민에 관한 인구기록을 통해[4],

4)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1955년부터 1962년 사이의 주민에 관한 인구기록이다. 이 기록을 통해 1955년부터 1962년 사이의 주민의 구성을 밝히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기록이 어느 해에 이루어졌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기록마다 기록의 작성연도가 다른데 언제 기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단지 1955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록이라고만 알 수 있다. 또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주거를 옮길 때 전입, 전출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중구 주민의 인구기록이 실려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자료가 그 당시 중구의 주민구성의 분석을 위해 공식적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수정(壽町)이라고 불리웠던 지금의 주자동(鑄字洞) 지역을 대상으로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시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이 된 주자동의 1955년부터 1962년 사이의 인구기록에는 120가구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주자동의 어느 특정 연도에 120가구가 함께 거주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1955년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가구가 거주했을지도 모른다. 반면에 1962년에는 여기에서 분석된 120가구가 모두 거주하고 있었고 또 다른 가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연구에서는 이 인구기록이 1962년 현재 거주하고 있었던 가구의 기록으로 간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 인구기록은 오늘날 주민등록 기록의 전신이다. 이 인구기록에는 주소, 가구주성명, 주택소유상태, 주택의 종류, 주택의 넓이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개별 가구원의 생년월일, 성, 본적, 직업 및 학력, 입주 혹은 출생년월일, 퇴거 혹은 사망년월일, 전주소(前住所)를 기록하고 있고 비고란이 있다. 이러한 기록이 모두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어떤 기록은 비교적 모든 항목이 충실하게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기록은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주자동 전체 가구가 120가구로 양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많지 않은 가구이기 때문에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도 생략하지 않고 모두 분석에 넣기로 한다.

1)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먼저 1955년부터 1962년사이에 거주한 주민들의 특성을 각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유일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 자료는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인데 중구청장 이하 중구청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순수한 학문적인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서울중구청장이하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재 필동사무소의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이 인구기록에 실린 가구의 가구주는 성별로 남자가 96명, 여자가 23명이며 성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상이 한 경우이다. 전체 가구 가운데 80%가 남자 가구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이 인구기록이 어느 해에 작성된 기록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살았던 주민들의 연령분포는 알기 힘들다. 대신 가구주의 출생년을 통해 이 시기 주자동에 살았던 주민들의 나이를 짐작해보자.

<표 4> 가구주의 출생년도

출생연도	빈도 (%)
1800년대	7 (5.8)
1900-1904	8 (6.7)
1905-1909	6 (5.0)
1910-1914	14 (11.7)
1915-1919	26 (21.7)
1920-1924	28 (23.3)
1925-1929	15 (12.5)
1930-1934	10 (8.3)
1935-1939	6 (5.0)
합	120 (100.0)

이 시기 가구주들은 1910년에서 192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 약 70%에 달한다. 1800년대에 출생한 가구주도 일곱명이다. 반면에 1935년에서 1939년 사이에 출생한 가구주도 여섯 경우나 된다. 이 기록이 1955년에서 1962년 사이에 작성되었음을 감안하면 30대 가구주가 가장 많은 셈이고, 그 다음이 40대 가구주, 그 다음이 50대와 20대 가구주 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인구기록에는 오늘날과는 달리 교육과 직업의 기록이 들어있다. 물론 교육과 직업에 관한 기록이 모두 충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주자동에 살았던 개인들의 교육과 직업에 관한 기록은

195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의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가장 파악하고 싶은 사항은 "어떤" 사람들이 중구에 거주하고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는 주민들의 교육, 직업 뿐만 아니라 출신지에 대한 관심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표 5>는 1955년부터 1962년 사이 주자동의 인구기록에 나타난 가구주들의 출신지 상황이다.

<표 5>를 보면 120명의 가구주 가운데 서울을 본적으로 하고 있는 가구주가 26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함남지역으로 13명, 그 다음이 평남지역으로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본적지를 기록하지 않은 미상의 경우도 11명이나 된다. 그 다음에는 경기지역과 경북지역이 각각 10명씩으로 나타난다.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그리고 중국을 북한지역 출신으로 간주한다면 북한 출신 가구주의 수가 38명이 된다. 이는 전체 가구주의 32%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본적란에 적혀있는 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새로 호적을 취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적은 북한이지만 남한에서 새로 호적을

<표 5> 가구주의 출신지역

지 역	빈도	(%)	지 역	빈도	(%)
서 울	26	(21.7)	제 주	1	(0.8)
경 기	10	(8.3)	황 해	5	(4.2)
강 원	4	(3.3)	평 북	3	(2.5)
충 북	4	(3.3)	평 남	12	(10.0)
충 남	5	(4.2)	함 북	3	(2.5)
전 북	2	(1.7)	함 남	13	(10.8)
전 남	4	(3.3)	중 국	2	(1.7)
경 북	10	(8.3)	미 상	11	(9.2)
경 남	5	(4.2)	합	120	(100.0)

취득하고, 이 인구기록에 본적과 함께 假호적으로 새로 취득한 호적을 기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출신이라 할지라도 본적에 북한을 쓰지 않고 새로 취득한 호적을 기록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는 본적란에 새로 취득한 호적을 가호적이라는 표시없이 기록하고 기타란에 본적을 적어놓은 경우도 있다. 또 본적란에 본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호적만 기록된 경우도 있다.

<표 6>은 원적지와 가호적지가 기재된 경우를 교차시켜 만든 표이다. 본적란에 원적을 적지 않았던 11명의 경우 모두 서울을 새로운 본적지로 정해 가호적을 만들고 있다. 또 원적지가 경기, 황해, 평북, 평남, 함북, 함남, 중국인 경우 함북출신 1명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을 새로운 본적지로 정해 가호적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경기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편입된 지역의 출신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원적지인 경우 1955년에서 1962년 사이에 서울 주자동에 거주하면서 새로 호적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서울을 새로운 본적지로 호적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5>와 <표 6>을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본적인 경우에 모두 서울을 본적지

<표 6> 가구주의 원적과 가호적지

원적지	가호적지	
	서울	경남
미상	11(28.21)	
경기	1(2.56)	
황해	4(10.26)	
평북	2(5.13)	
평남	8(20.51)	
함북	2(5.13)	1(2.56)
함남	9(23.08)	
중국	1(2.56)	
합	39 (100.00)	

로 새로운 가호적을 만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1962년까지는 북한출신들이 모두 새로운 호적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원적을 밝히지 않고 본적란에 가호적이라고 기록했던 경우도 모두 서울을 새로운 본적지로 호적을 만들고 있는 점에서 이들도 북한출신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들이 모두 북한출신이라는 증거는 인구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만약 본적지에 원적을 적지 않고 가호적만 기록한 경우를 모두 북한출신으로 간주한다면 주자동의 가구주 중 최대 40%가 북한출신이었다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주자동에 거주했던 가구주들의 교육수준은 어떠했을까? 이들의 교육수준은 출신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을까? 다음 <표 7>은 당시 가구주들의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120명의 가구주 가운데 39명은 학력에 관한 기록이 없다. 아마도 교육수준이 낮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의 공식적인 교육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나머지 사람 중 32명은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매우 놀랍게도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숫자가 무려 23명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을 거쳐 1960년대 초에 가구주 가운데 거의 20%가 대졸의 학력을 가지고

<표 7> 가구주의 교육수준

교육수준	빈도(%)
초등학교 졸업	14 (11.7)
중학교 중퇴	1 (0.8)
중학교 졸업	32 (26.7)
고등학교 졸업	9 (7.5)
전문학교 졸업	1 (0.8)
대학교 중퇴	1 (0.8)
대학교 졸업	23 (19.2)
미 상	39 (32.5)
합	120 (100.0)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졸 다음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수가 14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상은 무학력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졸, 그 다음은 대졸, 그 다음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나타나 이 기록만으로 보면 당시 중구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중구 주민들의 교육수준은 출신지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 <표 8>은 출신지에 따른 가구주들의 교육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8>에 따르면 출신지에 따라 교육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남한 출신 가구주의 경우 학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상"이 29명으로 남한 출신 71명 가운데 41%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이 중졸로 18명이고, 초등학교졸업 8명, 고등학교 졸업 5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북한 출신 가구주의 경우 학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4명에 불과하다. 학력이 기록된 32명의 북한 출신

<표 8> 가구주의 출신지별 교육수준

교육수준	남한	북한	미상[1)]
초등학교 졸업	8 (11.27)	5 (13.89)	1 (7.69)
중학교 중퇴	0	1 (2.78)	0
중학교 졸업	18 (25.35)	11 (30.56)	3 (23.08)
고등학교 졸업	5 (7.04)	3 (8.33)	1 (7.69)
전문학교 졸업	1 (1.41)	0	0
대학교 중퇴	1 (1.41)	0	0
대학교 졸업	9 (12.68)	12 (33.33)	2 (8.70)
미 상	29 (40.85)	4 (11.11)	6 (46.15)
합	71 (100.0)	36 (100.0)	13 (100.0)

주: 미상은 중국을 포함함.

가구주 가운데 대졸의 학력을 지닌 가구주가 무려 12명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 중졸이 11명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는 5명에 불과하다.

본적지를 기록하지 않고 서울을 새로운 본적으로 취득한 사람들은 학력난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6명으로 가장 많다.

미상을 북한 출신으로 간주하지 않고 본적을 북한으로 명확히 기재한 사람들만을 북한 출신으로 본다면, 북한 출신의 주자동 가구주들이 남한 출신의 주자동 가구주들보다 월등히 높은 교육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출신지역에 본적을 기록하지 않고 가호적만 기록한 사람들을 모두 북한출신으로 간주하여 교육수준을 살펴보아도 이들의 교육수준이 남한 출신의 가구주들의 교육수준보다 훨씬 높다.

교육수준을 출신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북한에서 내려와 중구에 정착한 사람들이 비교적 높은 사회적 계층의 출신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점을 직업구조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

다음 <표 9>는 1955년부터 1962년 사이의 인구기록에 나타난 가구주들의 직업구조이다. 학력과는 달리 직업에 대한 기록은 충실한 편이다. 전체 120명의 가구주 가운데 직업의 기록이 없는 경우는 여섯 경우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구기록은 모두 가구주의 직업을 기록하고 있다.

120명의 가구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상업이다. 표에서 상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업도 더 있지만 일단 상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3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5]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7명에 달해 그 당시 어려웠던 경제상황과 직업상황을 짐작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도 회사원이라고 응답한 경우

5) 이 당시의 상업은 어떤 종류였을까? 본 연구자는 1951년 1·4후퇴때 함경남도 흥남에서 피난을 내려와 거제도에 거주했다가 1953년에 약 80여명이 집단으로 거제도에서 충무로5가로 이주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을 면담한 바 있다. 이 분은 처음에 자신의 부친이 상업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동대문근처에서 길거리에 몇가지 물건을 놓고 팔았다고 응답했다. 즉,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소규모의 영세한 노점상들이 1950년대 상업의 주요한 한 부류였다. 서울학연구소에서 1999년에 면담한 바 있는 정재영 할머니도 당시 동대문과 남대문에는 많은 북한 출신들이 노점상을 벌여 장사를 하면서 살아갔다고 본 연구자에게 증언하고 있다.

가 19명이고 군인이 8명이다. 공무원도 6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회사원이라는 직업에는 회사중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인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표 9>는 당시의 직업세계를 좀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직업란에 기재된 대로 직업을 기록하였다. 당시 중구 주자동에는 의사, 약사, 변호사, 교원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가구주도 있었고, 연예인이나 미술이 직업이라고 응답한 가구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지물상, 출판업, 프린트필경 뿐만 아니라 미8군의 행정보조관이라고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

<표 9> 가구주의 직업

직업	빈도 (%)	직업	빈도(%)
상업	31 (25.83)	광업	1 (0.83)
회사원	19 (15.83)	세차업	1 (0.83)
군인	8 (6.67)	운전사	1 (0.83)
공무원	6 (5.00)	음식점	1 (0.83)
공업	3 (2.50)	자동차공업	1 (0.83)
기자	2 (1.67)	제조업	1 (0.83)
노동	2 (1.67)	지물상	1 (0.83)
약국	1 (0.83)	출판업	1 (0.83)
의사	1 (0.83)	프린트필경	1 (0.83)
변호사	1 (0.83)	8군행정보조관	1 (0.83)
교원	1 (0.83)	무	27 (22.50)
연예인	1 (0.83)	미상	6 (5.00)
미술	1 (0.83)	합	120 (100.00)

남한 출신의 경우 71명의 가구주 가운데 직업이 없는 경우가 19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상업으로 16명이고,

<표 10> 가구주의 출신지별 직업구조

직업	남한	북한	미상
상업	13 (18.31)	13 (36.11)	5 (38.46)
회사원	16 (22.54)	3 (8.33)	0 (0.00)
군인	4 (5.63)	4 (11.11)	0
공무원	4 (5.63)	2 (5.56)	0
공업	2 (2.82)	1 (2.78)	0
기자	1 (1.41)	1 (2.78)	0
노동	1 (1.41)	1 (2.78)	0
약국	0	0	1 (7.69)
의사	0	1 (2.78)	0
변호사	0	1 (2.78)	0
교원	1 (1.41)	0	0
연예인	0	1 (2.78)	0
미술	0	1 (2.78)	0
광업	1 (1.41)	0	0
세차업	0	0	1 (7.69)
운전사	1 (1.41)	0	0
음식점	0	0	1 (7.69)
자동차공업	0	1 (2.78)	0
제조업	1 (1.41)	0	0
지물상	1 (1.41)	0	0
출판업	0	0	1 (7.69)
프린트필경	1 (1.41)	0	0
8군행정보조관	0	0	1 (7.69)
무	19 (26.76)	5 (13.89)	3 (23.08)
미상	5 (7.04)	1 (2.78)	0
합	71 (100.0)	36 (100.0)	13 (100.0)

그 다음이 회사원으로 13명이다. 군인과 공무원이 각각 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5명에 달하고 있다.

남한 출신에 반해 북한 출신들은 먼저 직업을 적지 않은 경우가 한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 직업이 없다고 한 사람도 5명으로 남한 출신에 비해 북한 출신의 가구중 중 직업이 없다고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반면에 북한 출신들은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다. 북한 출신의 3분의 1이상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북한 출신 가운데 군인은 4명이고 회사원은 3명이다. 공무원도 2명이 있다. 중구 주자동에 거주했던 의사와 변호사는 모두 북한 출신이었다.

<표 9>와 <표 10>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출신들은 남한 출신보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주로 상업에 많이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과 연관시켜 논의하자면 남한 출신보다 훨씬 더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었던 북한 출신들은 남한에 내려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교육수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상업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남한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인으로 더 많이 진출했지만 회사원이라는 직업은 얻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직업을 갖기 힘들었던 시절에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출신들은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 혹은 연예인, 미술과 같은 특수 직종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당시의 아주 영세한 규모의 상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한 출신으로 중구 주자동에 거주했던 가구주들은 북한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상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북한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렇지만 북한 출신에 비해 남한 출신 가구주들은 회사원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중구 주자동으로의 전입시기

1955년부터 1962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인구기록에 나타난 가구들은 언제 주자동에 전입했을까? 이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구기록에는 '입주'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 각 가구가 입주한 시기를 살펴보자. 다음 <표 11>은 가구주의 입주시기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중구에 전입한 연도

전입연도	빈도(%)
1945	1 (0.8)
1946	7 (5.8)
1948	1 (0.8)
1949	2 (1.7)
1950	1 (0.8)
1951	1 (0.8)
1952	1 (0.8)
1953	5 (4.2)
1954	5 (4.2)
1955	2 (1.7)
1956	4 (3.3)
1957	7 (5.8)
1958	14 (11.7)
1959	5 (4.2)
1960	8 (6.7)
1961	30 (25.0)
1962	21 (17.5)
미상	5 (4.2)
합	120 (100.0)

매우 흥미롭게도 1955년에서 1962년까지의 인구기록은 주자동에 거주한 가구주의 입주시기가 1945년 해방부터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이전부터 주자동에 살았다고 기록된 사람이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이다. 1935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당시에 수정에 살았던 조선인이 70명이고 일본인은 700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 지역이 명백히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거주한 지역임은 분명하지만 1955년부터 1962년 사이의 인구기록에는 단 한 가구도 해방 전부터 거주하던 가구가 없다고 나온다.[6]

<표 11>에 따르면 7가구가 1946년에 중구 주자동에 입주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1950년 한국전쟁 이전에 11가구가 들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많이 입주한 것으로 기록된 해는 1961년과 1962년으로 각각 30가구와 21가구에 달한다.[7]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구주들의 출신지역과 입주년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 12>를 보자.

<표 12> 출신지역별 중구 입주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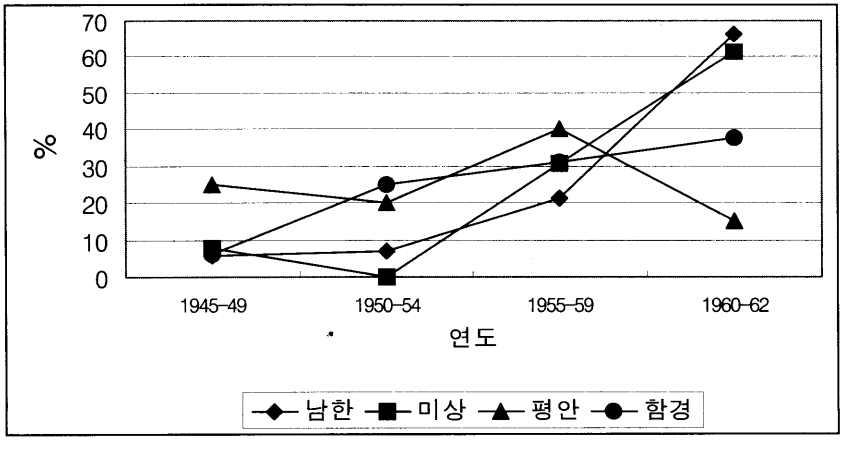
	1945-49	1950-54	1955-59	1960-62	합
남한	4 (5.63)	5 (7.04)	15 (21.13)	47 (66.20)	71 (100.0)
평안	5 (25.00)	4 (20.00)	8 (40.00)	3 (15.00)	20 (100.0)
함경	1 (6.25)	4 (25.00)	5 (31.25)	6 (37.50)	16 (100.0)
미상	1 (7.69)	0 (0.00)	4 (30.77)	8 (61.54)	13 (100.0)

6) 물론 입주년도를 밝히지 않은 가구가 5가구에 이르고 있어 이들 가운데 어떤 가구는 해방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가구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지만 이 기록이 없는 가구일수록 다른 항목의 기재도 부실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가구들이 해방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가구였으리라는 추측에 별다른 무게를 싣기가 힘들다.

7) 그러나 이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구기록을 잘 살펴보면 어느 해에는 대대적으로 호구상황을 조사하여 동사무소에서 직권적으로 인구기록을 한 기록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미 이전에 주자동에 입주했던 가구도 1961년이나 1962년에 입주한 것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구기록에 따르면 남한 출신들은 대부분 1955년 이후, 특히 1960년 이후에 주자동에 들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평안도 출신 가구주의 경우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에 9가구가 주자동에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1955년에서 1959년 사이에도 8가구가 들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함경도 출신도 마찬가지로 1954년 이전에 다섯 가구가 들어왔고, 1955년부터 1959년 사이에 또 다섯 가구 그리고 1960년 이후에 여섯 가구가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북한 출신으로 추정되는, 본적지가 미상인 가구들은 평안도나 함경도와는 달리 중구 주자동에 입주한 시기가 매우 늦게 나타난다. 이들은 1960년 이후에 주자동에 들어 온 경우가 8가구로 가장 많고, 1955년부터 1959년 사이에 네 가구가 들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61년이나 1962년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호구상태를 파악해 인구기록을 보다 충실하게 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지만 위의 <표 12>를 보면 북한 출신들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북한을 떠나 중구에 정착해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주자동이 매우 조그만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출신들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많은



<그림 2> 출신지역별 중구 입주시기

규모로 중구에 정착했는지 일반화시켜 말할 수 없지만 <표 12>에 나타난 결과는 남한 출신보다 북한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중구 주자동에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가구주와 동거인과의 출신지역 비교

위의 분석을 통해 중구 주자동에는 일본인들이 떠나가고 전쟁을 겪으면서 남한 출신들과 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지역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과 조선인들 사이에 거주지 분리가 있었듯이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들 사이에 거주지 분리가 있었을까? 이 연구는 해방 이후에는 중구 가운데 주자동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거주지에서의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 <표 13>은 가구주의 출신지와 동거인의 출신지를 교차시켜 만든 표이다.

어떤 가구는 완벽하게 혈연으로 이어진 직계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있다. 그러나 어떤 가구에는 끊임없이 동거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이 때의 동거인은 친척일 수도 있고, 친척의 불완전한 가구가 동거인으로 함께 올라오기도 한다. 또는 오늘날처럼 하숙을 하는 학생인 경우도 있고, 1980년대 초까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식모"라고 불리우는 여성도 있었다. 심지어는 "하녀"라고 기록된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동거인으로 분류하고 가구주의 출신지와 동거인의 출신지를 교차시킨 결과가 <표 13>이다.

<표 13> 가구주와 동거인의 출신지 비교

가구주출신지 \ 동거인출신지	서울/경기	강원	충북/충남	전북/전남/제주	경북/경남	황해	평북/평남	함북/함남	미상/중국	합
서울/경기	14	2	10	6	5	0	0	2	3	42
강원	1	0	0	0	0	0	0	0	0	1
충북/충남	0	0	5	3	0	0	0	0	0	8
전북/전남	0	0	1	8	0	0	0	0	0	9
경북/경남	5	2	1	0	15	0	0	0	1	24
황해	2	0	0	1	0	2	0	0	1	6
평북/평남	3	2	2	5	6	2	9	1	11	41
함북/함남	4	1	4	6	2	0	1	8	1	27
미상/중국	2	0	3	4	4	0	0	1	3	17
합	7	32	20	31	31	28	10	12	4	175

<표 13>에 나타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안도 지역을 제외하곤 가구주의 출신지역과 동일한 도의 동거인이 가장 많다. 서울 출신 가구주의 가구에는 동거인도 서울 출신이 많고, 경상도 출신 가구주의 가구에는 경상도 출신 동거인이 가장 많다는 의미이다. 둘째, 남한 출신의 가구주의 가구에는 북한 출신의 동거인이 드물다. 서울 출신 가구주의 가구에서 평안도 출신, 미상/중국 출신 동거인이 소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남한 출신 가구주의 가구에는 북한 출신의 동거인이 없다. 셋째, 반면에 북한 출신 가구주의 가구에는 북한 출신의 동거인뿐만 아니라 남한 출신의 동거인도 많이 존재했다. 그리고 남한의 출신지역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왜 남한 출신 가구주의 가구에는 북한 출신의 동거인이 없었을까? 반면에 왜 북한 출신의 가구

주의 가구에는 남한 출신의 동거인이 남한의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이 존재했을까? 가구주의 출신지역과 동거인의 출신지역과의 관계에 남한과 북한 출신 가구주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출신지역간에 거주지의 차별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제강점기에 민족별 거주지 분리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동별로 남한과 북한 출신 사이에 거주지 분리가 있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가구주의 출신지역과 동거인의 출신지역의 관계에 나타난 결과는 당시 남한 출신 주민들이 북한 출신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한 출신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와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5. 요약 및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1962년까지 남촌의 주민구성이 어떻게 변해나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남촌은 일본인들의 주요 거주지이면서 주 활동무대였다. 많을 때는 서울에 거주했던 전체 일본인 가운데 거의 50% 가까이 남촌에 거주했었다. 남촌의 인구 가운데에서도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었다. 이처럼 남촌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주요 거점이었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남촌이라는 한 공간에 살지만 그 내부에서 민족에 따른 거주지 차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유사성지수를 구해보았다. 비유사성지수로는 1925년부터 해가 갈수록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거주지의 차별이 감소해 간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유상성지수로는 정상적인 가구나 가족을 단위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에 거주지 차별을 판단하기 힘든 약점이 있었다. 따라서 동별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성비구조를 통해 계층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조선인의 성비구조가 매우 왜곡되어 있었고, 반면에

일본인의 성비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곳이 대다수임을 확인했다. 성비구조를 통해 조선인들은 정상적인 가족이나 가구를 단위로 살아가지 않는 수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었고, 이는 조선인들이 일본인의 주거지역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해방 이후 남촌은 조선인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출신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한국전쟁을 전후해 남한 출신들이 남촌에 자리를 잡았다.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수정, 지금의 중구 주자동을 사례지역으로 택해 분석해 본 결과 1962년까지 중구 주자동에는 북한 출신들이 상당수 자리를 잡고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구에 입주한 시기로 보면 상대적으로 북한 출신들은 남한 출신보다 한국전쟁 및 그 직후에 중구에 많이 들어왔고, 반면에 남한 출신들은 전쟁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중구로 많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구로 들어 온 북한 출신들은 남한 출신에 비해 교육수준이 훨씬 높았다. 북한에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고 이후 남쪽으로 이동한 인구들 가운데는 계층적인 측면에서 상층이나 중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직업구조를 보면 몇 몇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북한 지역 출신들도 보이지만 북한 지역 출신들은 많은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남한 지역 출신들은 직업이 없었던 경우도 많았고, 상업보다는 회사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북한 지역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북한 출신과 남한 출신의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섞여서 살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구주의 출신지역과 동거인의 출신지역을 비교해 보았다. 가장 흔한 경우는 가구주의 출신지역과 동거인의 출신지역이 같은 경우였다. 그러나 남한 출신 가구주들의 가구에는 북

한 출신의 동거인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북한 출신 가구주의 가구에는 남한의 전 지역 출신의 동거인이 존재했다. 이 결과만으로는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 혹은 사회적 차별이 있었는지 단언하기 힘들지만 남한 출신 사람들이 북한 출신 사람들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에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했다.

남촌의 주민구성의 변화는 20세기에 일어난 우리 역사의 극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식민지배, 해방, 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에 우리 민족이 이민족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었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 민족 사이에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었는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관계망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코드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그런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연구의 성과는 이 분야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시론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넓은 시기에 걸쳐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면 이 연구의 연구목적을 충실히 소화하고, 수많은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숨겨진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규정하는 구조와 관계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1910-1925 조선총독부연보』
조선총독부, 『1925-1944 국세조사보고서』
『서울 중구 주자동 동적부』, 1955-1962.
권태환 · 전광희 · 은기수, 1997, 『서울의 전통이해: 인구와 도시화』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은기수, 2000, "20세기 서울의 계층구조" 『향토서울』 60: 169-206.
_____, 2001,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계층구조 비교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4(1): 41-65.